

지체장애인을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이 현 정[†]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Wedding Dress Design for Handicapped People

Hyun-Jeong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2010. 9. 11. 접수일 : 2010. 11. 13. 수정완료일 : 2010. 12. 7. 게재확정일)

Abstract

In such special or precious occasions as a wedding ceremony, brides, handicapped or not, wish to wear a beautiful wedding dress. However, an ordinary wedding dress is not suitable nor convenient to a bride who has a bodily impediment. A one-piece type wedding dress, which even a normal bride needs assistants to help her wear, will create more inconvenience to crippled females. In this connection, this study is purposed to convert a normal ready-made wedding dress design into one suitable to the bodily handicapped females. For handicapped people on a wheelchair who generally put on and off a wedding dress while sitting on the chair, a one-piece type wedding dress is divided into the top and the skirt to make it a two-piece type wedding dress which is easy to get into and take off. The top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skirt in such a manner that the wearer may not be aware of the division of the two pieces but easily put on and off since the sides or back of the top is opened. An opening is also given to the sides of the skirt so that handicapped people may sit on the skirt on the chair and then close the opening by themselves. Converting ready-made wedding dress design into functional clothes for handicapped people is really significant in that ready-made clothes can be recycled, their production cost reduced, and the economic burden of handicapped people relieved.

Key words: handicapped people(지체장애인), wedding dress(웨딩드레스), reform(개조), recycling(재활용).

I. 서론

웨딩드레스는 결혼식을 위한 예복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일반 패션에 비해 유행의 주기가 길고 오랜 세월 디자인의 큰 변형이 없이 거의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실루엣, 네크라인, 소매 등이 계절과 유행에 따라 디자인 변화의 폭이 작고 유연하게 변해

왔다.

웨딩드레스를 통해 그 시대의 여성상이 표현되었고, 웨딩드레스는 결혼 예복이라는 의미를 넘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에게 최고의 아름다움과 행복으로의 약속이라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행운과 미래에의 약속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듯 결혼식은 특별하고 귀한 행사로 결혼을 하는 신부라면 장애의 유무를 떠나 누구나 아름다운 웨딩

이 논문은 2005년도 중앙대학교 신진우수연구자 지원 사업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E-mail : vini2002@paran.com

드레스를 입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성복이 신체적 균형이 잡힌 비장애인을 위주로 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목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치수 맞춤 정도가 떨어지고 활동 면에서 불편함을 주는 것처럼 기성 웨딩드레스도 지체장애를 가진 신부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다.

특히 비장애인 신부도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도우미가 입고 벗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중증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도우미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벗는 것을 도와주기에도 힘들다.

현대 복식은 풍성하고 다양한 스타일로 넘쳐나고 현대의 소비자는 의복을 통한 신체 보호의 일차적인 기능 외에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잘 맞으면서 신체적인 결점까지도 보완하여 심리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장애를 가진 신부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기성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입고 벗기 편한데 주안점을 두고 개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 4작품을 제작하였다.

기성 웨딩드레스 4벌을 기성 웨딩감각과 취향이 고급화, 다양화된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있는 슬림하면서 단순한 실루엣, 세련된 이미지에 포인트를 두고, 입고 벗기 좋도록 탑과 스커트로 분리하여 투피스형 웨딩드레스로 개조되 분리된 느낌이 없도록 개조하고, 혹 & 아이, 스냅으로 트임을 주어 착탈이 편하도록 하였다.

기능성을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부여함으로써 중증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 신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웨딩드레스의 평균 가격대(2007년)는 대역시장은 70만 원 대이고, 맞춤시장의 경우 500만 원대¹⁾인데 매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조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웨딩숍에서 유행이 지나거나 제작된 후 기간이 경과한 기성 웨딩드레스는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무료로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유행 경향을 고려하여

개조할 수 있는 드레스를 선정하여 장애로 인한 결점을 커버하면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으로 개조를 한다면 웨딩드레스를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 경비가 절감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웨딩드레스를 구매 혹은 대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개조는 따라서 지체장애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웨딩드레스에 대한 일반적 고찰

서양식 결혼에서 신부가 착용하는 의상의 총칭인 웨딩드레스는 브라이달 드레스(bridal dress), 웨딩 가운(wedding gown), 불어로는 로브 드 마리에(Robe de marie)라고도 하며, 흰색의 드레스, 베일, 꽃, 기타 장신구로 구성된다. 이들 구성 요소들은 각각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즉, 흰색의 웨딩드레스는 신부의 순결을, 흰색 베일은 신부의 정절을 뜻하고, 장미, 카네이션, 프리지어 같은 꽃은 오렌지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 다산과 순결을 상징한다²⁾.

일반인들에게 웨딩드레스가 흰색이라는 개념이 정착된 시기는 19세기 이후로³⁾ 1840년 빅토리아 여왕과 알버트 왕자의 결혼식에서 그녀가 레이스로 된 흰색의 새틴 드레스를 착용하면서이다. 19세기 후반인 1880년에서 1890년에는 긴 트레인이 달린 흰색의 드레스에 긴 베일을 쓰는 형태를 갖추게 되고, 20세기까지 패션 유행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면서 화려하고 우아하며 무엇보다 아름다워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안에서 현대 웨딩드레스의 전형을 이루게 되었다.

웨딩드레스의 실루엣은 시대별로 변천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다양한 실루엣이 웨딩드레스에 적용되고 있다. 웨딩드레스의 대표적 실루엣에는 머메이드 실루엣, 버슬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 A라인

1) 이경재, “친환경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8.

2) 김향남, “웨딩드레스 이미지에 따른 토탈 코디네이션 연구: 헤어와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5.

3) Avril Lansdell, *History in Camera Wedding Fashions 1960~1980*, (London: Shire Publications, 1984), p. 5.

<표 1> 대표적인 현대 웨딩드레스의 실루엣

머메이드 실루엣		A라인 실루엣	
버슬 실루엣		프린세스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		피트 앤 플레어 스타일	

실루엣, 프린세스 실루엣, 피트 앤 플레어 실루엣 등이 있다⁴⁾.

베일(veil)은 드레스보다 좀 더 상징적으로 신부가 시집 가는 도중에 다른 젊은 남자들의 눈길을 딴 곳으로 돌리고 약탈 등의 예측 못할 일을 예방하기 위해 신부를 포(布)로 완전히 싸서 안 보이도록 한 것이 나중에 의식화되어 베일이 되었다⁵⁾. 19세기에 이르러 결혼식을 위한 베일의 형태가 갖추어지고 흰색으로 정착되었다.

웨딩드레스의 소재는 주로 그 시대에 유행하는 소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계절에 따라 적절히 이용되고 있으나 다른 의복에 비해 계절에 의한 구분이 적은 편이다. 봄과 여름에는 주로 레이스, 쉬폰, 오간자, 크레이프, 툴 등의 가볍고 청량감을 주는 소재가 많이 쓰이고, 겨울에는 브로케이드, 벨벳, 울, 크레이프 등이 많이 쓰인다. 또한 새틴이나 타프타 같은 원단 등은 계절에 관계없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이 중 실크류는 웨딩드레스의 가장 전형적인 고급 원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레이스는 오랫동안 화려함과 부유함을 상징하면서 순수성과 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⁶⁾. 장식요소의 표현기법도 프릴, 러플 등의 주름 기법과 모티프 장식기법, 자수기법, 비딩기법 등이 한정되어 나타난다⁷⁾.

2. 지체장애인의 특성

장애는 그 유형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적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뉜다. 외부 신체적 기능의 장애는 다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신체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나머지의 장애는 인체의 감각이나 언어의 능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장애로 신체

4) 이영희, “웨딩샵과 웨딩드레스에 대한 소비자 조사 및 웨딩드레스 디자인 제안”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20.
 5) 川燈傳子, “웨딩드레스의 역사,” *의생활연구* 10권 5호 (1983), p. 32.
 6) 이영희, op. cit., pp. 22-23.
 7) 정은아, “크로세 기법의 꽃 이미지를 응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 1.

〈표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체장애의 종류 및 기준¹⁰⁾

종류	기준
절단장애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외상에 의한 결손뿐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
관절장애	해당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 등)의 경우
지체기능장애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 · 팔, 다리의 기능장애 :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 :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의 움직임은 거의 일반인과 같다.

지체장애는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장애의 종류는 지체기능장애, 관절장애, 절단, 변형으로 구분되며, 〈표 2〉와 같다.

3. 지체장애인을 위한 의복디자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은 좌식생활로 인해 상체의 돌레부분과 허리돌레, 넓다리돌레의 사이즈 증가, 휠체어 바퀴와의 마찰로 인한 소매부위의 오염과 마모, 의복의 착탈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목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팔 동작의 부자유, 겨드랑이의 당김 등의 문제와 함께 비장애인에 비해 위팔돌레가 넓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을 위해 기성복을 개조하려면 어깨나 팔의 근육이 발달한 경우 어깨와 암홀의 보정을 해주고⁸⁾, 스커트나 바지 같은 하의의 경우, 앉았을 때 허리가 조이거나 밑위길이가 짧아져 등이 드러나고 앞쪽은 여유분이 접히는 문제, 허벅지부분에 걸리고 무릎이 접히면서 바지의 길이가 짧아지는 문제 등을 고려⁹⁾하여야 한다. 상의의 경우, 어깨와 가슴부분에 충분한 여유가 필요하므로, 뒤편에 요크를 넣고 맞주름이나 개더를 넣어 보정해 줘야 한다. 또한 입고 벗기 쉽도록 지퍼나 스냅을 이용해 트임을 처리하는 것도 좋다.

목발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목발의 사용으로 인해 팔의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고, 겨드랑이 부위가 당겨 올라가므로 상의의 경우 기능성 있는 여밈 장치와 운동 분량을 고려한 여유 있는 겨드랑이돌레, 겨드랑이 부분이 헤어지지 않도록 덧단이나 무를 대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의의 경우 너무 길면 활동에 불편함을 주므로 발목까지 오는 정도의 길이가 적당하다. 절단장애가 동반된 경우 바지의 양쪽 옆선을 허리부터 지퍼를 이용해 트임을 주고, 고무 밴드나 끈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여밈 장치를 하면 의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바지의 탈부착이 쉽고 서 있는 상태에서 지퍼를 내렸을 때도 흘러내리지 않는다.

III. 작품 제작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로 인해 생기는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개발하되, 웨딩드레스를 새로 제작하지 않고 기성 웨딩드레스를 웨딩숍에서 구매해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개조하였다. 이는 웨딩드레스의 평균 가격은 앞서 밝혔듯이 매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식이 좀 되거나 유행이 지난 웨딩드레스는 웨딩숍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무료로 구할 수

8) R. W. Chase and M. D. Quinn, *Design without Limits*,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 2003), p. 51.

9) 田中直人, 見寺貞子, *ユニバーサルファッション*, (東京: 中央法規, 2003), pp. 36-39.

10) 이현정, “지체장애인 여성의 체형특성 분석 및 기능성 의복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 12.

있어서 최근 유행 경향을 파악하여 개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경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웨딩드레스의 최근 경향은 심플하고 자연스러우면서 복고풍, 로맨틱 스타일, 내추럴 스타일이 공존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신부의 개성을 살리면서 결점을 커버하는데 디자인의 중심이 있다¹¹⁾. 따라서 개조 전 웨딩드레스를 선정할 때 감각과 취향이 고급화, 다양화된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있는 슬림하면서 단순한 실루엣, 세련된 이미지에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개조할 수 있는 드레스를 4벌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때 웨딩드레스의 실루엣의 종류 및 실루엣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휠체어나 목발 등의 보장구를 사용하는 신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린세스 실루엣과 A라인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이거나 개조할 수 있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작품은 총 4작품으로 <표 3>과 같이 드레스 1~드레스 3은 원피스형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탑과 스커트로 분리하여 입고 벗기 쉬운 투피스형 웨딩드레스로 개조하였고, 드레스 4는 개조 전 웨딩드레스의 트레인 부분을 없애고 심플한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개조하였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신부는 주로 앉아서 웨딩드레스를 착용하기 때문에 기성 웨딩드레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피스형 웨딩드레스는 입고 벗을 때 어려우므로 개조 포인트를 탑과 스커트로 분리하여 탈착이 쉬운 투피스형 웨딩드레스 디자인이 되도록 개조하였다.

장애인들은 기능성 의복이더라도 특수복처럼 보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투피스형 웨딩드레스이지만 일반 비장애인이 입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분리한 탑이 스커트를 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리된 스커트 부분의 허리에 같은 소재를 덧대어 연장 시킴으로써 탑과 스커트로 분리되었다는 느낌을 없앴다.

드레스 1은 개조 전 드레스에 부착되어 있던 플라운스를 재활용하여 분리된 허리부분을 자연스럽게 커버하였고, 드레스 2는 스커트에 주름을 잡아 분리된 느낌이 없도록 하였다. 드레스 3은 플라운스를 새로 제작하여 허리부분에 덧붙여 주었다.

심플한 디자인을 위해 어깨 끈이 없는 탑(strapless) 드레스 스타일과 캡 소매 혹은 슬리브리스 스타일의 드레스에 포인트를 주는 추세이므로 그대로 디자인을 활용하되, 탑은 옆이나 뒤쪽에 트임을 주고 혹 & 아이를 이용해 여밀 수 있게 한 후 입고 벗기 쉽도록 개조하였다.

스커트 부분도 옆선 전체를 절개해 트임을 준 다음 휠체어에 펼쳐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지체장애인 신부가 앉은 후, 도우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여밈을 닫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 때 여밈은 스냅과 벨크로, 콘실 지퍼를 이용할 수 있는데 웨딩드레스 소재 특성 상 벨크로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냅과 콘실 지퍼를 이용하였다. (드레스 1, 2)

되도록 개조하기 전의 웨딩드레스에 부착되어 있는 비즈, 스팅글, 구슬, 레이스, 리본 등은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같은 소재를 바이어스로 재단한 후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넓은 어깨, 굵은 위팔둘레를 감출 수 있도록 솔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다(드레스 2).

목발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신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신부보다 신체의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원피스형 웨딩드레스를 착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기성 웨딩드레스를 탑과 스커트로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드레스 4).

손을 넣고 빼기 쉬운 쪽에 초점을 맞추어 탑의 어깨부분부터 스커트의 옆선까지 모두 트임 처리하거나 겨드랑이부터 스커트 옆선까지 트임을 주어 입고 벗기 쉬우면서도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으로 개조하였다. 이 때 트임 부분은 혹 & 아이와 스냅을 이용하였다(드레스 3).

11) “웨딩, 개성은 살리고 결점을 완벽하게 커버하라!,” *bntnews* (2010년 3월 24일 [2010년 3월 2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bntnews.hankyung.com>

<표 3> 지체장애인 신부를 위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디자인 1	디자인 2	디자인 3	디자인 4
개조 전				
개조 후				
디자인특징	원피스드레스 형태에서 탑과 스커트로 분리하고, 각각 입고 벗기 편하도록 스냅으로 여밈 부분을 제작하였다. 탑과 스커트가 분리된 느낌을 없애기 위해 원래 웨딩드레스에 있던 플라운스를 재활용하였다.	탑과 스커트로 분리하고 탑의 진동둘레를 넓혀주었다. 스커트의 폭을 줄여서 휠체어에 앉았을 때의 부피감을 줄였고, 혹 & 아이를 이용해 여밈 부분을 제작하였다. 또한 솔을 활용해 신체결점을 감출 수 있도록 하였다.	탑과 스커트로 분리를 하고 스커트를 새로 제작한 후 탑의 어깨와 겨드랑이를 혹 & 아이를 이용해 여밈 처리하였다. 이때 플라운스는 새로 제작하여 휠체어와 목발사용자에 맞추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버슬 실루엣의 드레스는 부피 때문에 휠체어나 목발사용자가 불편하므로 스커트의 폭을 줄여 슬림한 실루엣이 되도록 개조하고, 버슬부분에 있던 리본 중 하나를 허리에 포인트로 재활용하였다.

IV. 결 론

현대의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사회적 흐름 및 패션 트렌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매체의 발달과 다양화로 인해 전문적인 패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은 패션디자인과 디테일에 민감해졌다.

신체적 결함을 이상적인 형태로 보완해 주고 목적에 맞으면서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의복은 착용자에게 사회적 수용감과 행복감을 준다. 특히나 신

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는 더욱 중요하며, 더욱이 결혼식이라는 특별하고 귀한 행사를 맞는 신부라면 장애의 유무를 떠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기를 원한다. 일반 기성 웨딩드레스 디자인은 비장애인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목발이나 휠체어 같은 보장구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에게 치수 맞춤 정도가 떨어지고 활동면이나 웨딩드레스의 착탈면에서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성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지체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변형을 주고, 입고 벗기 편한 측면

에 주안점을 두어 개조를 이용해 총 4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웨딩드레스 디자인의 기본적인 상징성은 변하지 않되 자유로운 감성과 개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흐름에 맞추어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하며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웨딩드레스는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에게 큰 의미가 있으므로 다양한 디자인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셋째, 지체장애를 가진 신부의 경우 웨딩드레스의 착탈 측면을 고려하여 기성 웨딩드레스를 개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지체장애인 여성의 체형과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가 활성화되고, 헤어, 메이크업 등의 토탈 코디네이션에 대한 연구와 함께 비장애인을 위한 웨딩드레스의 경우 베일의 역할이 크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베일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제안해본다.

참고문헌

- 김향남 (2003). “웨딩드레스 이미지에 따른 토탈 코디네이션 연구: 헤어와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희 (2009). “여성들의 웨딩 코디네이션 선호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재 (2008). “친환경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2008). “웨딩샵과 웨딩드레스에 대한 소비자 조사 및 웨딩드레스 디자인 제안.”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 (2005). “지체장애인 여성의 체형특성 분석 및 기능성 의복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田中直人, 見寺貞子 (2003). *ユニバーサルファッション*. 東京: 中央法規.
- 정은아 (2008). “크로셰 기법의 꽃 이미지를 응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川燈傳子 (1983). “웨딩드레스의 역사.” *의생활연구* 10권 5호.
- bntnews, “웨딩, 개성은 살리고 결점을 완벽하게 커버하라!” (2010년 3월 24일 [2010년 3월 2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bntnews.hankyung.com>
- Chase, R. W. and M. D. Quinn (2003). *Design without Limits*.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
- Lansdell, Avril (1984). *History in Camera Wedding Fashions 1960 ~1980*. London: Shire Publications.